

20250713 온세대 예배 (설교: 이신희 전도사) 후대를 세우는 금, 토, 일 시대 [신명기 6:4-9]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9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 오늘 '후대를 세우는 금, 토, 일 시대', 제가 올해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많은 은혜를 저는 하나님께 받았습니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이렇게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보다도 제가 선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열려 속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또 전달하고자 합니다.

▶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5월달에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저희 권사님이신 우리 숙모님께서 울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가가지고 이제 숙모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렸어요. 저희가 워낙 형제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신이요 하니까 '아, 네가 대구에서 전도사질 한다며?', 제가 예전에도 한 번 그 우리 옆집의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가 대구에서 큰 교회에서 전도사질 한다며?', 아니 이 의성에 계시는 이 권사님들은 다 전도사를 보고 전도사질이라고 하는데 저의 정체성은 전도사질입니다.

▶ 또 얼마 전에 또 저의 별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좀 전에도 포럼하고 왔는데 염화대왕이라고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염려하고, 화내고, 소리 지르는 사람 집에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성령의 불들림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는 경상북도 의성군 옥산면 전능1리 그 시골에서 저희 아버지는 1975년 그 시골에 광정교회를 설립하신 설립 멤버로서 정말 아버지는 늘 새벽 기도에 새벽 제사를 쌓으시고, 교회의 모든 것은, 교회의 일은 곧 나의 일, 가정의 일보다도 교회 일이 항상 우선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런 가정에 10남매 중 아홉 번째로 태어나서 자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 아버지가 정말로 기도하시는 것은 진심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진심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 교회를 사랑하는 중심은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집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고, 가정과 가문의 이 어려움들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 그러던 때에 저는 드디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 시골에서 중학교 때 시골에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친지도 모르는 중학생이 교회 시골에는 반사라고 하잖아요? 교사하고 같이 저도 해매는데 그 애들 데리고 교사가 없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교사하고요.

▶ 그렇게 하다가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종교는 똑같다. 그래서 나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여기 다니다가 이제 대구로 어차피 고등학교 때문에 나가니까 그때는 자유를 찾아서 교회를 떠날 것이다 결단을 하고, 고등학교 시험을 치러 이렇게 대구에 오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이 대구에 있었기 때문에.

▶ 그러다가 시험치고 나서 저희 언니가 저녁에 갑자기 오시더니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장난하나,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가 나이가 16세니까 16년인데 지금 무슨 질문을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지? 진짜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 그때 정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문제, 우리 가정에 이 재앙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충성했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요. 사탄의 배경 속에서 있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 저는 중학교 졸업하면 이제 교회를 이별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더 확실한 이 송현교회로 17세 때 고등학교 입학하고 동시에 송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니다. 그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구나! 왜냐하면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 정말 저는 그때 그 다락방 전도 운동 시작할 때 그때 딱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정말 모두가 오직이셨어요. 진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담임목사님, 우리 사모님과 또 우리 모든 부교역자, 전도사님 또 목사님들이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저를 맡아주신 선생님들 모두가 다 오직이었어요.

▶ 다 현장에 냄비 들고, 버너 들고 2박 3일 동안 집회 갔다 오셔야지고, 저를 맡아주신 고등부 선생님들은 기본으로 애들을 집에 불러서 자기 집에 자기가 밥 해 가지고 팀 사역하고, 자기가 밥 해 주고, 다락방하고, 진짜 저희 고등학교 때 모두가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저의 그 고등학교 신앙생활이 새롭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때에 저에게 전달된 그 성령의 역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 정말 우리교회가 그때 이렇게 이단 정죄 받고, 우리 그때 저는 사실 그때 말씀의 은혜를 받았지만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잤어요. 맨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맨날 잤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안 앉고 싶은데, 잠을 안 자고 싶은데 그 상태 자체가 잠이 오는 상태였어요.

▶ 그러면 이제 앞에 굳이 자는 나를 앞자리에 끌고 가서 앉는 우리 언니가 너무 싫었어요. 뒷자리에서 앉아도 드러도 될 텐데 그렇지? 꼭 그렇게 자는 나를 계속 예배 시간에 목사님한테 계속 인사하고, 상태가 그랬단 말이에요,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 그런데 그 영적인 흐름, 복음의 흐름, 이단 정죄 받을 때 막 우리 장로님, 우리 모두가 원네스 되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가시는 모든 우리 하나님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 사랑을 제가 보고 컸다는 게 저는 너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그런 상태가 안 좋은 제가 어떻게 현장에서 했냐면은 저는 당연히 학교에서 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가 대 경산여고를 다니는데 거기에 경산이 여기에서 멀니다. 그렇지? 그때가 뭐 차가 많을 때도 아니고, 거기서 전도 해 가지고 친구 고등부 그때 고등부 예배 9시에, 그 친구는 압량에 사는 친구요. 여기 경산 사시는 분은 압량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 친구는 압량에 사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고3 때 그 친구를 전도해 가지고, 송현교회까지 데리고 왔단니까요.

▶ 그리고 기본으로 학교에서 우리 전부 다 친구들은 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 송현이고, 원화여고, 경화여고 이런 애들 다 학교에서 다락방하고, 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고, 왜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었는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른들이 그랬어요. 우리 환경 자체가 완전 오직이었어요.

▶ 그래서 제가 그리고 저희는 고등학교 때 수련회 이런 데 가면은 목숨 걸고 갔어요. 심지어 웹폰트들이 선생님하고 싸우고, 특히 고3의 중요한 시간표에 막 이렇게 보충 수업 빠지고 이러면은 이게 뭐 선생님하고 사이 갈라지는 걸 생각하고, 그냥 그냥 1년 내도록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졸업할 때까지 사이가 안 좋아지는 그런 거를 감수하고도 다 수련회 가고, 훈련 받고, 오직 복음 그렇게 훈련받았던.

▶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교 가서도 대학교가 조금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50명 졸업했는데 정말 반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세상의 문화 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훈련받아도 그렇게 또 떠나려가는 친구들이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또 대학 전도학교 인도 받고, 또 신학원 가고, 뭐 그렇게 훈련의 흐름 속에서 핵심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 그런데 그게 너무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 좋은 환경에서 '아, 이렇게 인도를 받았던 웹폰트였구나!', 제가 뭘 해 우리교회, 하나님교회 온 지 이렇게 년수로 따져보니까 30년 되었는데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했던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들, 권사님들, 선생님들이 또 우리 가족들 그 만남이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설 수 있었을까요? 저는 병원에 있다고 생각해요.

▶ 정말 이때는 모든 분들이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홀, 전문 교회, 지교회에 24 하였고, 제가 한 게 빠진 게 있는데 학교에서 다락방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한테도 복음 다 전했어. 그런데 그게 저만 한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가 그렇게 했어요. 무한 반복되는 복음의 환경, 복음이 무한 반복되는 그런 영적인 환경에서 제가 자랄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 그래서 오늘 '후대를 세우는 금, 토, 일 시대', 오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하는데 우리 교역자실에서 매일은 아니고 하여튼 저희 모이는 시간에 기도회를 하는데, 늘 이반 올해 주신 그 유업을 놓고 기도하는데 딱 후대를 세우는 금, 토, 일 시대, 그러면 이 말씀을 목사님께서 그 특별 새벽 기도 때 두 강이나 해가지고 우

리에게 주셨습니다.

▶ 그래서 정말 제가 이번에 금, 토, 일 시대 또 열어가고 있는 부분들을 인도받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포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지고 그걸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셨고, 그 두 강의 말씀을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 하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고,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보면서 너무 축복받았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확인했었습니다.

▶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금, 토, 일 시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바른 복음을 회복해야 되고, 성경적 전도 운동할 제자, 우리가 후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금, 토, 일 시대를 반드시 당연, 필연, 절대로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렘넌트 운동, 또 기도 배경 속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의 영적 상태, 보좌의 망대를 쌓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금, 토, 일 시대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정말 지금 시대 자체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들었지만 4.5일 제도가 도입되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타락, 또 교회는 세속화 되어지고, 창세기 3장의 극단적 이기주의,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기력하고, 성공 제일주의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반드시 영적으로 후유증이 오는데 아무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이 시대는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 그래서 이 심각한 영적문제, 정신병, 공황증, 우울증, 중독, 범죄, 살인, 자살, 교회 문 닫는 시대 이때 이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닌 복음 기준을 가진 렘넌트 영적 서밋을 세워야 됩니다. 복음 엘리트 길러내야 됩니다.

▶ 저희가 토요일마다 그 학기제로 해가지고 이번 학기 봄학기 때 토요일 1시 30분에서 3시까지 우리 서밋스쿨을 했던 그 모습을 스케치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저희가 한 2023년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 교역자들에게 금, 토, 일 시대를 열라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 금, 토, 일 시대를 어떻게 열어야 될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먼저 유치부에서는 토요학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2023년 2월부터 토요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야 할 수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동역하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 그래서 정말 토요일날 이렇게 렘넌트들 일단 처음에 저희는 지금 서밋스쿨은 부모님과 함께하는 서밋스쿨이지만 토요학교 시절에는 부모님이 함께하지 않고, 그냥 5세에서 7세 이렇게 인도 받는 서밋스쿨이었습니다.

▶ 그래서 그때 우리 유치부 교사 선생님들하고 함께 진짜 목숨을 바쳐, 진짜 인생을 갈아서 토요학교를 했습니다. 너무 진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한 학기 시작할 때는 금, 토, 일 시대, 금, 토, 일 시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모여서 잘했는데 갈수록 사람들이 안 오는 거예요. 렘넌트들이 안 오는 거예요.

▶ 그래서 1학기, 2학기, 3학기, 2024학년 봄학기 때 저희가 그런데 그 안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전환점의 시간표를 딱 주시더라고요. 이게 우리교회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대구 경북을 향해서 문을 열어야 되고, 또 부모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 와서 렘넌트만 각인하고 가면 결국 부모님들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같이 영적인 흐름을 소통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가 와야 된다는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전혀 안 되는 상태,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민의 축복을 주시고, 유아 유치 선교교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토요 학교에서 유아 유치 서밋스쿨이라는 전환점의 시간표를 허락하시고, 연령도 4세에서 7세, 그리고 부모님도 함께 참여하고, 대구 경북 모든 지역에 렘넌트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 처음에 솔직히 진짜 누가 오겠나? 토요일날 그런 마음, 정말 불신앙의 마음이 가득 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한 명이 오더라도 해야 된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결단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한 가정이 오더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은 렘넌트들을 대구 경북에서 보내주셨습니다.

▶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교회에서 제일 많이 왔었고요. 그리고 진짜 옆에 있는 영광교회, 왜관 선교교회, 참빛교회, 우리 대구 경

북 그리고 한 다락방 교회가 아닌 교회에서도 오게 되고, 그리고 저 멀리 포항에서도 오게 됩니다.

▶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는 이번 학기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번 학기의 주제로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든지 원래 이렇게 시작할 때는 잘 되다가 왜 두 번째 하면 약간 좀 또 그쯤에 또 불신앙의 바람이 또 세게 불 때이기도 했었고, 그때 영적인 분위기를 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 그때 참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아니 뭐 하려고 이런 걸 해가지고 괴롭히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딱 주시는 메시지가 딱 있었습니다. 그때 핵심 메시지를 딱 듣고 있는데 저는 맨날 아이들한테 물고기는 물 속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땅 속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행복하단다.

▶ 늘 메시지로 서론으로 전하는데 그때 그 메시지가 저에게 딱 답이 되었어요. 정말 우리 부모님과 렘넌트들이 토요일 날 다른 것 안 하고, 여기서 복음 듣는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야.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확신을 딱 주셨어요.

▶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또 다음 학기 가을 학기 또 시작해야 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서밋스쿨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을 진짜 제자로 세워가시는 우리 유아 유치 서밋스쿨에 오시는 부모님들이 찬양 인도하고, 부모님들이 활동도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서밋스쿨의 기도 제목처럼 부모님이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들을 보게 되었고요.

▶ 또 정말 오늘 제가 또 기도하면서 렘넌트 사역, 이 금, 토, 일 시대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무엘, 그 사무엘은 유아 유치 시기에 성전으로 보내져서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보좌화의 축복을 가진 렘넌트로 자라나서 시대에 재앙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 유아 유치 서밋스쿨에 이 유아 유치 렘넌트들이야말로 정말 이 시간표에 보좌의 망대가 쌓여진다면, 이 부모님들이 보좌의 망대가 쌓여진다면 우리는 우리교회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 정말로 제가 오늘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30년 전에 오직 복음이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현장에서 일어났던 그런 환경들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 번 오직 속으로, 이번 여름에 HRC, 또 WRC, 리더 수련회, 각종 이 훈련 시간들이 있습니다.

▶ 결국 우리 렘넌트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만 자란다는 것을 저는 우리 하나교회에 30년 동안 있으면서 저는 너무나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보고도 오늘 이번 주부터 다 핵심 나오자. 핵심 나와서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다시 시작하자, 다시 보좌의 망대를 쌓아가자. 우리가 불신앙의 바람이 불어서 너무너무 황폐해져 있더라고요.

▶ 제 자신도 너무 황폐해져 있고,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황폐해져 있더라고요. 정말 다시 한 번 우리의 잘못된 망대, 사탄이 심어놓은 망대를 바꿔야 되는 시간표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번 여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보좌의 망대가 각인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온세대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말 하나의 기도가 나 한 사람으로부터 기도하면 하나의 기도가 시대를 바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우대 후대를 살릴 줄로 확신합니다. 정말 사무엘이 일어나서 기도를 쉬지 않는 죄를 범치 않았다. 고백했던 그 후대가 우리 렘넌트, 우리 하나교회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말 이 언약 붙잡고, 정말 우리 후대들이 오직 복음, 이 복음이 이 복음으로만 모든 충분하고, 완전한 렘넌트 일어날 수 있도록.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렘넌트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여름에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

▶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후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이 진리고, 생명이고, 답인 것을 아는 귀한 후대들을 일으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도시켰던 것처럼 이번 여름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후대를 놓고, 함께 원네스 되어져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축복, 성령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